선미촌, 문화 · 예술의 거리로 조성된다

전주시-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 사업 추진 위해 성미산공동체 등 선진지 견학 실시

지난 26일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원들과 전주시관계자들이 성미산공동체와 여성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옛 철강소공장지역의 기능전환을 통해 예술촌으로 탈바꿈된 서울 문래동 예술공장등을 차례로 돌며 선미촌 기능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여성인권에 대해 교육하고, 문화가 있는 예술거리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모델 발굴에 나섰다.

시와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는 26일 선미촌을 인권과 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선도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국내에서는 성매매집결지가 도시계획에 의해 전면 철거 후 개발된 적은 있지만, 인권·예술공간 등으로 기능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선미촌이 처음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미산공동체와 여성인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옛 철강소공장지역의 기능전환을 통해 예술촌으로 탈바꿈된 서울 문래동 예술공장 등을 차례로 돌며 선미촌 기능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성미산공동체는 지난 20년 동안 공동육아와 공동카페, 공동식당, 공동학교 운영 등 마을공동체 운동을 진행해온 곳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선미촌을 활기찬 마을공동체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견학과 여성인권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선미촌을 여성인권 등 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배웠다.

참석자들은 또 옛 철강소공장지역에 200여명의 예술가들이 이주하면서 예술촌으로 거듭난 문래동 예술공장을 함께 견학하며 선미촌을 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했다.

이와 관련, 시는 50년 전부터 서노송동에 형성된 선미촌(2만2760㎡)의 기능전환을 위해 올해 10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폐·공가 매입을 통한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총 67억원을 들여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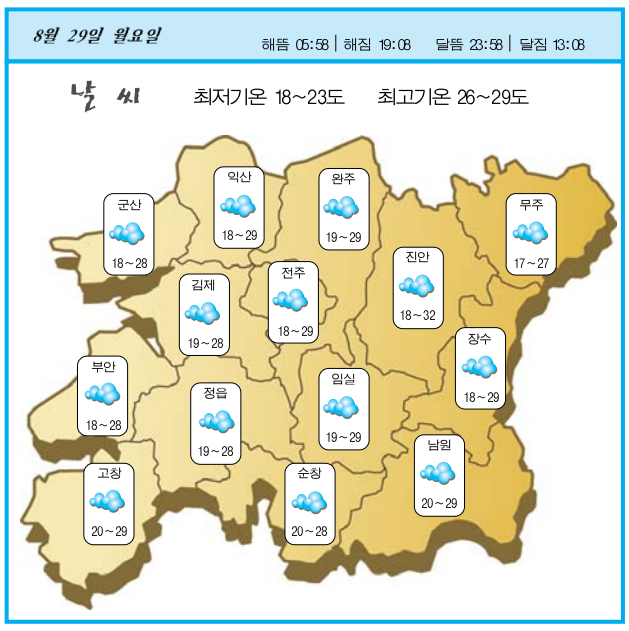
시는 기존에 매입한 폐공가에 대해서는 쪽방형태의 여인숙건물의 일부를 보존해 성매매업소의 기억의 공간으로 남겨둘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초에는 선미촌에 문화예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상설 전시공연공간으로 정비된 폐공가에서 전주시 신진예술가로 선정된 조형예술가 소보람 씨의 '눈동자 넓이의 구멍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한 선미촌 내 첫 번째 설치 미술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매입한 성매매업소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정주형 창작예술공간으로 조성해 선미촌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 넣는 핵심문화거점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예술가들의 선미촌 내 공간에 대한 기록탐색과 여성인권과 성매매, 여자 등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생활창작공간 체험활동 등을 진행한 후, 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 사업과 3단계 정주형 예술창작공간화 작업을 거쳐 선미촌을 인권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에 대한 점진적·전면정비를 통해 인권과 예술의 거리, 열린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과학고 2017학년도 신입생 경쟁률 3.6 대 1

60명 정원 216명 지원, 전년 대비 0.15% 낮아져

전북과학고등학교(교장 홍진석)는 25일까지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원서 접수를 받은 결과 평균 3.6 대 1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교 입학전형 포털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결과 전북과학고의 경우 60명 정원에 216명이 지원한 것. 이 가운데 정원의 20%(12명)를 선발하는 사회통합 전형은 38명(기회균등 전형 24명, 사회다양성 전형 14명)이 지원했다.

이는 작년도의 경쟁률(3.75:1)에 비해 다소(0.15%) 낮아졌는데, 학교 측은 영재고, 지역 자사고 등으로 지원자가 분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전북과고에 입학하면 이공계 과학특성화대학인 KAIST(카이스트), POSTECH(포스텍), GIST(지스트) 뿐만 아니라 DGIST(디지스트)와 UNIST(유니스트)에 우선 진학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특기자 전형 및 과학영재 전형 확대와 심층면접 비중 강화로 서울대와 연.고대 등 일반대학 수시 전형 이공계열 분야의 대학입학 대비에도 유리하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전북과고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은 60명(3학급)으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올해에도 신입생 전체를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입학담당관들에 의해 모든 지원자 대상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오는 11월24일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12명을 포함한 합격자 60명이 최종 선발된다.

/고민형기자

전주시, '책 읽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중앙 시립도서관 1980년 이후 36년 만에 보유장서 100만권 돌파

전주시립도서관이 보유한 장서가 100만권을 돌파하며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 읽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전주시는 전주 중앙 시립도서관(현 금암도서관)이 신축된 지난 1980년 이후 36년 만에 시립도서관 보유장서가 100만권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100만 번째 도서는 최숙희 작가의 '너는 어떤 씨앗이니?'라는 도서로, 최근 개관한 효자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현재까지 시립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총 102만1242권으로, 주제별로는 '문학'이 42만권으로 가장 많고, △사회과학 16만권, △역사 8만권, △기술과학·순수과학이 각 6만권, △예술·철학·어학이 각 5만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도서관별로는 완산도서관이 24만여권을 보유해 가장 많았고, 금암도서관 15만여권, 삼천·서신도서관 각 10만여권, 인후·송천도서관 9만여권, 아중도서관 7만여권, 평화도서관 6만여권, 쪽구름도서관 4만여권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개관한 건지도서관과 효자도서관은 각각 3만여권의 도서가 소장돼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민들의 지식정보 및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의 근간인 장서확보를 위해 도서기증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또, 도서구입비 확대를 통해 매년 6만권의 신간도서를 확충하는 등 전주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을 쉽고 편하게 찾아 힐링하고, 책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1인 1독서동아리 갖기 운동을 범시민 독서진흥사업으로 전개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을 매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살맛나는 전주, 책 읽는 문화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홍정길 이사장 연임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에 홍정길(74) 현 이사장이 연임됐다.

신동아학원은 2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홍정길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새 임기는 오는 9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간이다. 홍 이사장은 현재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이자 밀알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한편 신동아학원은 1953년 학교법인 영생학원으로 최초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현재 전주대학교·전주비전대학교·전주영생고등학교·전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를 운영 중이다.

/고민형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